

조선시대 안동 봉정사의 인쇄 문화에 대한 고찰

이상백 *

-
- | | |
|--------------------|------------------|
| 1. 머리말 | 3. 봉정사의 불교 경전 간행 |
| 2. 봉정사의 연혁과 인쇄 문화사 | 4. 결론 |
-

초록: 본 연구에서는 안동 천등산에 위치한 봉정사의 인쇄 문화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봉정사에서는 조선 후기에 다량의 불교경전이 한 시기 동안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으며, 불교경전 이외의 다양한 서적도 사찰에서 지속적으로 간행되었음을 확인된다. 현재 이 시기에 간행된 불교 경전 일부와 상당수의 간행 관련 사료가 현존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과 사료들에 주목하여 봉정사의 인쇄문화사적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봉정사의 개괄적인 역사적 상황과 인쇄 문화, 그리고 불경 간행으로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봉정사의 위치와 인접 지역, 그리고 각종 사료들을 살펴봄으로써 사찰의 문화 형성 배경과 전반적인 인쇄 문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봉정사에서는 1769년 한 시기에 15종의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데, 경전의 간행 배경과 그 성격, 그리고 간행 참여 인력 및 현존본 분석을 통해서 당시 봉정사의 불교경전 간행 문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안동의 봉정사에서는 조선 시대, 특히 조선 후기에 상당히 다양한 전적의 간행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적은 불교 경전에서부터 문집, 창의록 등 다양한 서적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서적 간행을 위하여 봉정사에서는 간역소가 설치된 경우도 상당 수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핵심어 : 安東, 鳳停寺, 寺刹, 사찰출판, 인쇄문화, 大藏殿, 嘉興大藏經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鳳停寺는 안동의 天燈山에 위치한 사찰로 682년(신문왕 2) 義湘 大師가 창건했다고 전해졌으나, 1971년 극락전에서 지붕의 수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상량문이 발견되면서 그 내용에 따라 672년(문무왕 12)에 能仁 大師가 창건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봉정사의 국보 제311호인 대웅전과 국보 제15호인 극락전은 상량문이 발견되면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조 건축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건물로 인정되었으며, 봉정사에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靈山會相圖〉와 조선 후기인 1710년에 제작된 〈掛佛圖〉, 1713년에 제작된 〈阿彌陀會上圖〉 등의 많은 불화들이 현존하기 때문에 그간 건축사 및 미술사와 관련한 학계의 조명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2000년 2월에는 대웅전 지붕 보수공사 때 발견된 묵서를 통해서 조선 초기에 사찰의 大藏殿에 大藏經을 보유하였으며 500餘結의 논밭을 지녔으며, 堂宇도 전체 75칸이나 되었던 대찰임이 밝혀졌다.

이같이 대찰이었던 봉정사는 안동에서 불교계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유학자들도 많이 방문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있었던 사찰이었다. 특히나 봉정사는 대장전에 대장경을安置하였으며 직접 전적을 간행하기도 하는데, 불교 관계 문헌들뿐만 아니라 유학자들의 문집 등 폭넓은 주제의 서적을 간행하여 다채로운 문화가 서려있는 서지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찰이다.

그간 봉정사는 고건축사와 미술사 학계에서는 집중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서지사적으로는 연구 성과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지사와 관계 있는 봉정사의 대장전은 그간 미술사 학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¹⁾ 봉정사의 서적 간행과 관련한 서지학적 연구는 봉정사의 전반적인 서적 간행을 연구하기 보다는 안동지방의 인쇄 문화를 다루면서 봉정사를 언급한 연구와 봉정사의 불경간행의 특징적인 한 단면에 집중한 연구가 각 한 편씩 확인된다. 전자의 연구에서는 안동

1) 林南壽, 2008 「鳳停寺에 관한 諸問題」, 『미술사연구』 22, 73-92면 : 이경미, 2007 『고려·조 선의 法寶信仰과 經藏建築의 변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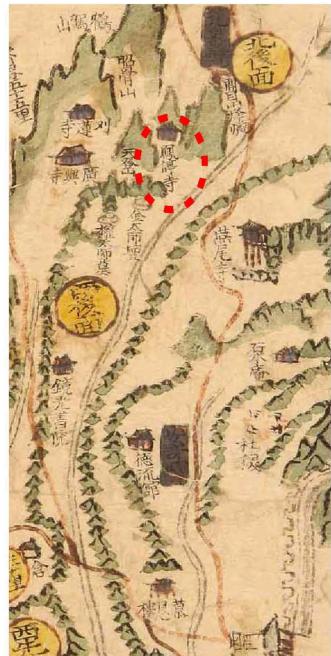
지방에 현존하는 책판들을 대량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사찰판을 다루면서 봉정사의 목판을 언급하였으며,²⁾ 후자의 연구에서는 명대의 민간 대장경인 『嘉興大藏經』이 조선에 유입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번각되는데, 여러 간행지와 간행 경전들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 중 하나의 간행지로서 봉정사의 대장경 번각 배경과 그 종류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³⁾ 그밖에는 봉정사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안동의 봉정사가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그간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건축·미술사적인 측면이 아닌 서지사적인 측면에서 봉정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첫째, 봉정사의 연혁 및 현존하는 각종 사료를 통해서 봉정사의 서적 간행, 보관 등 인쇄 문화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 봉정사에서 간행한 현존본인 불교경전의 간행 배경과 참여한 인물, 그리고 몇몇 현존본의 특징을 통해서 봉정사 현존 간행본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시 봉정사의 서지사적 및 불교 문화사적 가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2. 봉정사의 연혁과 인쇄 문화사

1) 봉정사의 연혁

봉정사는 안동의 천등산에 위치한 사찰로 孤雲寺의 말사다. 『安東府邑誌』와 『新增安東府輿地誌』에는



〈그림 1〉 『신증안동부여지지』의
지도

2) 임노직, 2005 「安東의 木板印刷와 徽州의 木板」, 『안동학연구』 4, 93-131면.

3) 이종수, 2013 「조선후기 가흥대장경의 復刻」, 『서지학연구』 56, 328-352면.

안동부 서쪽 30리에 위치한 신라시대의 고찰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⁴⁾ 672년 의상의 제자인 능인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능인 창건설에 대하여 능인이 道力으로 종이로 만든 봉황을 날렸는데, 이 종이 봉황이 앉은 곳에 절을 짓고 ‘봉황이 앉은 자리’라 하여 봉정사라 하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하지만 전설을 통해서 사찰의 창건 시기를 가늠하기는 힘들며, 극락전의 해체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墨書名에 1363년(지정 23년)에 사찰이 중수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봉정사는 고려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봉정사는 현재의 안동시 서후면에 위치하였는데, 그 인접 환경을 살펴보면 봉정사는 외부와 단절되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서후면에는 봉정사뿐만 아니라 천등산에 開目寺, 그리고 안동의 대찰이었던 학가산의 廣興寺 등 인근에 몇몇 사찰들이 있었으며, 鶴鳳 金誠一(1538~1593) 종택, 豊山府院君 柳仲纓(1515~1573)의 齋舍인 崇室齋, 안동 김씨 시조인 太師 金宣平의 재사인 安東金氏 台庄齋舍, 松巖 權好文(1532~1587)이 건립하여 학문을 강론하던 건물인 觀物堂, 1686년(숙종 12)에 裴尙志·李宗準·張興孝의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鏡光書院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사찰과 가까운 거리에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혼재한 위치적 환경으로 봉정사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봉정사는 당시 불교적인 문화는 물론, 그 이외의 다양한 문화를 혼합적으로 갖춘 사찰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봉정사는 退溪 李滉(1501~1570)을 비롯한 여러 유학자들이 방문했음을 알 수 있는데,⁵⁾ 특히 퇴계가 봉정사에 머물면서 자주 인근의 계곡에서 講道하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665년(현종 6)에 건립한 樓閣形 亭子인 鳴玉臺는 퇴계와 봉정사의 관계를 잘 보여준

4) 『安東府邑誌』, 『新增安東府輿地誌』 중 「佛宇」 “在府西三十里天燈山下新羅時古刹”

5) 『退溪先生文集』 권4, 권40, 『退溪先生文集外集』 권11, 『退溪先生年譜』 권2, 『藥圃先生續集』 권1, 『松巖先生文集』 권2, 『谷雲集』 권4, 『水村集』 권4, 『靜齋先生文集附錄』 권1, 『梅窓先生文集』 권1, 『修巖先生年譜』 권1, 『愚川先生文集』 권1 등 다양한 유학자들의 문집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봉정사를 방문하고, 또 거기서 모임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다고 할 수 있다.⁶⁾ 또한 조선 후기에는 안동의 다섯 문중의 선비 13명이 모여서 만든 계인 友鄉契의 모임을 봉정사에서 가졌다는 기록이 보이는 등⁷⁾ 안동에서는 유가, 불가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찾았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봉정사의 연혁은 그 관련 기록인 1363년(공민왕 12)의 「극락전상량문」, 1625년(인조 3)의 「극락전상량문」, 1728년(영조 4)의 「天燈山鳳停寺記」, 1809년(순조 9)의 「兩法堂重修記」 등의 중수 기록 및 봉정사의 각 건물의 중창 및 중수와 관련된 기록이 새겨진 현판들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다.⁸⁾

2) 봉정사의 인쇄 문화사

봉정사에서 인쇄 문화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부분은 먼저 사찰 내에 大藏殿이 있었다는 것이다. 1972년 봉정사의 극락전이 수리를 위해 해체되면서 墨書名이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서 극락전이 원래 대장전의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⁹⁾ 대장전에는 대웅전 중창시기인 1435년 무렵에 대장경 3부가 안치되어 있었으며,¹⁰⁾ 임진왜란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¹¹⁾ 1863년에 「鳳停寺極樂殿重修記」가 찬술되는 것을 통해서 19세기에는 대장전의 기능을 잃은 것이 확인된다.¹²⁾

봉정사와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전적은 고려시대 사경인 『紺紙金泥妙法蓮華

6) 봉정사와 퇴계의 관계는 『新增安東府輿地誌』와 정조대에 편찬된 종합 사찰 전서인 『梵宇考』에서 봉정사의 설명에 퇴계의 시와 명옥대를 함께 넣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7) 봉정사에서 우향계 모임이 행해졌음은 1865년(고종 2)에 작성된 『友鄉禊案』 중 “茲以開月十日 會于鳳停寺”, “世好禊會所在天燈山鳳停寺” 등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8) 본고는 서지사적인 측면에서 봉정사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봉정사의 연혁 및 중수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한다. 연혁 및 중수와 관련된 사항은 ‘문화재청, 2007 『鳳停寺 極樂殿 : 修理·實測報告書』, 문화재청’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9) 林南壽, 2008 「鳳停寺에 관한 諸問題」, 『미술사연구』 22, 74면.

10) 林南壽, 위의 논문, 84면.

11) 문화재청, 위의 책, 102면.

12) 林南壽, 위의 논문, 84면.

경 권7이다. 이 경전은 봉정사에서 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366년(공민왕 15) 9월 都評議錄事 典農直長 權圖南을 비롯한 備純衛精勇別將 權仁達, 司醞直長 同正 權有成 · 權釋奴, 道人 戒珠 · 世昌 등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선조들의 극락 정토의 왕생을 위해 사성하여 안동 봉정사에 봉안한 사경이다.¹³⁾ 이를 통해서 상당히 이른 시기에 봉정사에 경전이 봉안되었으며 또한 경전을 봉안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전을 제외하고는 조선 전기 봉정사의 인쇄 문화사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1728년(영조 4)에 작성된 「天燈山鳳停寺記」를 통해서 당시 봉정사에 보관 중이던 경전 및 전적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는 당시 봉정사에 『妙法蓮華經』을 보관하던 궤와 『묘법연화경』 60권, 『中禮文』 2권, 『結手文』 2권, 『雲水壇歌詞』 1권, 『佛說預修十王生七經』 2권 『불경시주책』 2권이 있었는데,¹⁴⁾ 위 경전 중에 현존하는 봉정사 간행본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전들의 간행 목적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봉정사에서 1769년(영조 45)에 15종의 불교 경전이 한 번에 간행되었다. 이는 당시 상당히 큰 간역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간행 경전으로는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¹⁵⁾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¹⁶⁾ 『四分戒本如釋』, 『菩薩戒儀疏』, 『起信論疏筆削記』, 『佛說天地八陽神呪經』,¹⁷⁾ 『竈王經』, 『山王經』, 『神衆作法請文』,¹⁸⁾ 『受戒文』, 『比丘戒七聚大目』, 『沙彌戒』, 『戒律緣起』, 『威儀抄錄』, 『誌公梵本』이 포함된다. 이 경전들은 모두 전래되지는 않고 일부만 현존하고 있다. 현재 봉정사의 불교 경전 간행과 관련한 기록 및 현존하는 경전은 이 한 시기 간

13) 보물 제1138호 『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7 발문 “故敬寫一部 特爲先父累劫親緣 超生淨土
云且 至正二十六年丙午九月日 凤停晉鎮”

14) 「天燈山鳳停寺記」 중 “法堂傳來器物 … 法華經橫壹 … 法華經陸拾卷 中禮貳卷 結手貳卷
雲水壹卷 預修二卷 跪臺橫壹 佛經施主冊貳卷”

15) 이하 『慈悲道場懺法』이라 칭하고자 한다.

16) 이하 『梵網經』이라 칭하고자 한다.

17) 이하 『八陽經』이라 칭하고자 한다.

18) 이하 『請文』이라 칭하고자 한다.

행본밖에 없지만 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대량의 경판이 봉정사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봉정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 시기의 경전 간행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봉정사에서는 불교경전 간행뿐만 아니라 문집 간행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양한 사료를 통해서 상세히 알 수 있다. 문집의 간행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18세기 이후에 보이는데, 각종 사료를 통해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李象靖(1711~1781)의 『大山集』에는 이상정이 1781년(정조 5)에 봉정사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간찰이 있는데, 이 글을 통해서 당시 봉정사에서 金誠一(1538~1593)의 문집인 『鶴峯先生續集』을 교감하는 작업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이는 학봉 종택이 봉정사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상정의 조카인 倭庵 李塉(1739~1811)는 그의 숙부의 문집인 『대산집』 간행에 힘썼는데, 이 문집의 책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안동의 광흥사와 봉정사에서 판목을 써는 작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²⁰⁾ 또한 조선 후기 문신인 琴詩述의 문집인 『梅村文集』을 통해서는 봉정사에서 申星模(1763~1827)의 문집인 『陶山集』을 중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²¹⁾ 조선 후기 문신인 金興洛(1827~1899)의 문집인 『西山先生文集』을 통해서는 1858년(철종 9)에 『近思錄集解』를 봉정사에서 講하고 增刪하는 작업을 했음을 알 수 있다.²²⁾

봉정사에는 책의 간행을 위한 간역소 또한 마련되는데, 간역소 설치에 대한 기록은 각종 사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먼저 1860년(철종 11) 3월 20일에 安東道會所 명의로 柳致任 등 47명이 禮安 校院에 보낸 通文을 통해서 봉정사에서 『戊申倡義錄』을 인출하고자 刊所를 세운 것을 알 수 있으며,²³⁾ 咸陽朴氏 正郎公派 문중 전

19) 『大山集』 권15 書 중 「與鳳停寺會中」 “鶴老先生續集 … 左右推車 政所以共濟 千萬力加勘討 速成定本 拙蹤坐享漁人之功矣”

20) 『倭庵文集』 권3 「答金子野」 “板木太半入手 今已在廣興鳳停之間 烹之幾了”

21) 『梅村文集』 권2 「詩」 “鳳停寺監陶山集重刊登鳴玉臺伏次先生韻”

22) 『西山先生文集』 권5 「處士金公行狀」 “戊午與諸名勝 講近思錄集解增刪于鳳停寺”

23)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통문0057 “通文 右文爲通諭事 伏以戊申倡義錄剞劂之役 卽吾南未遑之事也 … 刊所則定于安東鳳停寺”

적 중 1897년에서 1903년까지의 기록을 모은 『渚上日月』에는 조선 후기의 문신인 柳台佐(1763~1837)의 저술인 『闡揮錄』의 간역소를 봉정사에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²⁴⁾ 그리고 李蓍秀(1790~1849)의 『慕亭集』에는 봉정사 간역소에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²⁵⁾ 같은 문집에 『퇴계선생문집』의 중간을 마무리했음을 알리는 告由文이 있기 때문에 퇴계 이황 문집의 중간이 봉정사 간역소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간역소는 봉정사가 아닌 명옥대에 세웠음을 알 수 있다.²⁶⁾

그리고 蔡濟恭(1720~1799)의 문집인 『樊巖集』에 대한 간역소와 간역 활동은 현존하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李羲發(1768~1850)의 『雲谷集』과 李仁行(1758~1833)의 『新野集』에는 채제공의 『변암집』 간역소에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으며,²⁷⁾ 또한 조선 후기 문신인 李宗休(1761~1832)의 『下庵文集』에서는 봉정사에서 채제공의 『변암집』을 교감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²⁸⁾ 문집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이 사항은 봉정사의 『변암집』 간행소에서 1824년(순조 24) 4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의 일의 전말을 기록한 일기인 『刊所日記』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일기는 필사본으로 표지의 기록을 통해서 1824년 정월 17일에 봉정사 都會에서 간소를 정하고 4월 초1일에 都廳所를 설치하여 4월 20일에 登刊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 일기에서는 당시 『변암집』 간행 과정 및 간행비용, 간행을 위한 회의, 소요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당시 봉정사에서 다양한 서적의 간역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봉정사에 문집의 목판을 보관한 사례도 확인된다. 이는 중기의 문신 金尙

24) 『渚上日月』 제9권 중 “初九日 考課于沃野書堂 小渚之翁併考 納名近百 旱事熾慮 設闡揮錄 刊役所于鳳停寺”

25) 『慕亭先生文集』 卷5, 「與鳳停刊所」

26) 『慕亭先生文集』 卷9 退溪先生文集重刊後告由文 중 “仍協力縫掖同聲 酒寫酒校于彼鳳寺西樓舊題玉臺”

27) 『雲谷先生文集』 卷5 與鳳停刊所; 『新野先生文集』 卷4 與鳳停刊所

28) 『下庵文集』 卷1 詩 “樊巖集校勘事會鳳停寺蔡令公弘遠次退陶鳴玉臺韻索和却呈”

29) 『刊所日記』 표지 목서 “甲申正月十七日鳳亭道會時定所 四月初一日設都廳所 同月二十日登刊”

憲(1570~1652)의 문집인 『淸陰先生集』의 1861년(철종 12) 중간본에서 확인되는 데, 이때 기록된 경상도 관찰사 金世均(1812~1879) 발문에 『청음선생집』의 책판을 안동 봉정사에 두었는데 시기가 오래 되어서 다시 증보하여 간행한다는 기록이 있는데,³⁰⁾ 봉정사 간행본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봉정사에 문집 책판도 보관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안동 천등산에 자리 잡은 봉정사는 일찍이 대장전을 갖춘 사찰로 인근의 다양한 문화가 혼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봉정사에서는 다양한 서적의 간역이 행해졌는데, 조선 전기 보다는 조선 후기인 18세기 이후에 주로 관련 사항이 확인된다. 간행 서적은 불경뿐만 아니라 문집 등 다양한 전적이 있으며 봉정사에서 교정, 교감 등의 작업에서 간역소를 설치하여 직접 간행이 이루어진 사례까지 폭넓게 그 인쇄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봉정사의 불교 경전 간행

1) 봉정사 간행 불경의 간행 배경과 성격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봉정사에서 간행된 불교 경전은 다양하지는 않지만 1769년(영조 45)에 15종이 한 번에 간행된 것이 확인된다. 간행된 15종이 모두 현존하지는 않지만, 몇몇 현존본에 공통적으로 새겨진 발문에 각 경전의 간행 배경과 그 시기에 간행된 15종의 경전명, 그리고 1769년에 해당하는 간기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당시의 간행 상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현재 이 당시 간행된 15종이 모두 현존하지는 않으며 또 독자적인 간행이 아닌 여러 경전이 한 책으로 합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중 현존본은 다음과 같다.

30) 『淸陰先生集』 발문 중 “淸陰先祖詩若干卷編爲十四冊 梓木奉安東鳳亭寺 刊久字漫往往
缺裂不可句”

〈표 1〉 봉정사의 간행 불경 현존본 목록

서명	권책수	판본	간행시기	소장처
起信論疏筆削記	20권 4책	목판본	1769	고려대, 안동대, 동국대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20권 2책	목판본	1769	안동대, 안동대, 동국대
四分戒本如釋	12권 4책	목판본	1769	대구가톨릭대, 송광사, 안동대, 동국대
菩薩戒儀疏	2권 1책	목판본	1769	동국대, 안동대, 용화사
神衆作法請文	1책	목판본	1769	동국대, 안동대, 연세대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	1책	목판본	1769	용화사, 동국대 경주
佛說天地八陽神呪經	1책	목판본	1769	동국대, 안동대

현존하는 봉정사 간인 불교 경전은 총 7종으로 다른 사찰에 비해서 현존본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 간행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당시 봉정사 불교 경전 간행 활동의 일면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봉정사에서는 어떠한 일로 1769년(영조 45)에 불교 경전을 간행하게 되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범망경』, 『사분계본여석』, 『자비도량참법』, 『청문』, 『기신론소필 삽기』에 공통적으로 발문이 등장한다. 이 발문에는 당시 봉정사에서 간행한 책의 목록이 나오는데 각기 책을 표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두 같은 책을 지칭한다. 대표적으로 『자비도량참법』에 나오는 발문을 통해서 간행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慈悲道場懺法, 梵網經 1卷, 四分律 12卷, 菩薩戒儀疏 上下卷, 筆削記 20卷, 八陽經, 竈王經, 山王經, 神衆請文, 受戒文, 比丘戒七聚大目, 沙彌戒, 戒律緣起, 戒儀抄錄, 誌公梵本³¹⁾

31) 1769년 봉정사 간행본 『慈悲道場懺法』跋文 “右慈悲道場懺法者 … 梵網經1卷, 四分律12卷, 菩薩戒儀疏上下卷, 筆削記20卷, 八陽經, 竈王經, 山王經, 神衆請文, 受戒文, 比丘戒七聚大目, 沙彌戒, 戒律緣起, 戒儀抄錄, 誌公梵本 凡十五般也”

위 현준본 5종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발문에는 위 15종 경전을 동시에 간행한다는 사실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간행 경전에 공통적으로 발문이 기재되어 있고, 15종의 간행 경전의 목록이 있음에도 이 각 경전의 간행 배경은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일부는 서문 또한 존재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살펴본 간행 배경은 다음과 같다.

- 범망경 : 국내에 판본이 많이 있으나 불에 타고 썩어서 문장도 빠지고 잘못된 것이 많아서 익히려는 자가 병통으로 여기고 있다.³²⁾
- 사분계본여석 : 근세에 주인 없는 선박이 중국으로부터 와서 임자도에 표착하였는데 몇 권이나 되는지 알 수 없는 대장경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 가운데 '사분율'이 있었다.³³⁾ 총 12권인 사분율은 중국의 배가 동쪽으로 가다가 미치지 못하여서 옛 노인이 한탄스럽게 여겼다.³⁴⁾
- 자비도량참법 : 자비도량참법은 … 세조대왕전하가 새겨서 서울의 절[京寺]에 보관을 해서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여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안쓰럽게 여겼다.³⁵⁾
- 청문 : 간행 목적이 나타나지 않음.
- 기신론소필삭기 : 간행 목적이 나타나지 않음.³⁶⁾

발문에는 간행 배경이 모두 나타나지는 않지만 각 경전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 간행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각각 그 배경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분계본여석』의 경우에는 서문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반입된 『가홍대장경』을 번각하겠다는 간행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 발문 후반부의 간행 대상 경전명, 왕에 대한 봉축 등은 다른 경전에서도 동일한 내용과 형식을 지니지만, 발문의 전반부에 밝히고 있는 간행 목적은 간행 경전에 따라 동일하지 않게 나타난다. 따라서 봉정사에는

32) 1769년 봉정사 간행본 『梵網經』跋文 “此國多有板本 而或火或朽 又文有闕誤 誦習者甚病焉”

33) 『四分戒本如釋』「重刻四分律序」 중 “近世有無主海舶 自支那而來 泊於莊子島 乃滿船大藏 不知幾許卷 而四分在其中矣”(이종수, 앞의 글, 348면에서 재인용).

34) 1769년 봉정사 간행본 『四分戒本如釋』跋文 “蓋十二卷四分律 唐舶之東 而不及於古老之慨”

35) 1769년 봉정사 간행본 『慈悲道場懺法』跋文 “右慈悲道場懺法者 … 然世祖大王殿下 鎏藏 京寺 印出不自在也 欲覽者 多以眼恨”

36) 『起信論疏筆削記』에는 발문에는 간행목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서문이 있는데 서문은 1769년의 저본이 된 1753년의 서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간행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각각 간행 필요성이 있었던 경전들을 1769년에 한 번에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 번에 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경전 외에 봉정사에는 1769년(영조 45)에 이 경전들의 간행과 관련한 현판인 「慶尙左道安東西嶺天燈山鳳停寺大藏經鏤板部數及印出体例規模記」가 현존하고 있다. 이 현판은 1769년(영조 45)에 봉정사에서 대장경을 인출할 때 당시의 배경, 인출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 봉정사의 불교 경전 인출 사업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간행본에 확인할 수 없었던 당시 경전 간행의 목적은 당연시되는 목적일 수 있겠으나, 봉정사에 불교 경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이 현판에 따르면 ‘비록 세상에 빠진 것이 많이 있으나 가장 필요한 것이 大藏法寶이며 가장 귀중한 것으로, 불·법·승 3보 중 하나라도 빠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⁷⁾ 대장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3보 중 하나라도 빠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당시에 봉정사에 대장법보, 즉 불교 경전이 부족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당시 봉정사에는 대장전이 있었는데, 대장전에 봉안된 경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간행한 경전을 대장전에 봉안하고자 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사찰에 부족했던 경전을 간행하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노력과 시간 또한 알 수 있는데, 현판에 따르면 ‘雪月과 月岩이라는 두 승려가 주도하여 시주를 받아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공력으로 귀신과 같이 일해서 5월에서 12월까지 주변을 막고 한데 모여서 크게 불사를 일으켜 불철주야로 일을 하는 것이 새로 불상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³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설월과 월암이 大化主가 되어 진행한 간역사업은 불상을 조성하는 것과 동등할 정도로 경전 간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이 15종의 경전을 7개월 만에 간행했다는 것을 알 수

37) 「慶尙左道安東西嶺天燈山鳳停寺大藏經鏤板部數及印出体例規模記」 중 “閱歲千秋所欠雖多於中最繁者 唯大藏法寶歟 吾家最尊最崇者 佛法僧三寶如三光三足之例 闕一不可也”

38) 위 현판 중 “爰有道人厥號雪月月岩兩大師 慨然發心袖藏勸軸 募諸檀越物 若天來功似鬼役 自五月至季冬 結界道場 大作佛事 畫夜不掇 則與新造像無異也”

있다.

또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봉정사에서 당시 인출사업을 진행할 때의 지침 또한 간략하게 나오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一. 본 사찰의 승려가 인출 시 총괄하여 썩거나 깨진 것을 看儉한다.³⁹⁾
- 二. 인출하는 僧員은 僧統에게 작은 일이라도 고해서 폐단이 없도록 한다.⁴⁰⁾
- 三. 인출 시 至誠이 많던 적던 간에 佛, 神衆, 聖衆에게 공양을 드려야 한다.⁴¹⁾
- 四. 봄, 가을 양 계절에 인출한다.⁴²⁾
- 五. 몇 卷, 몇 丈인지 題目만 보면 모두 다 알아야 한다.⁴³⁾
- 六. 판을 뒤집을 때는 찬찬하고 자세하게 하며, 던져서 깨트리고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⁴⁴⁾
- 七. 작은 것을 버리거나 들이는 등의 물정을 갖추는 일에도 삼가 덕을 높이고 재난을 두렵게 여겨 거행할 일이다.⁴⁵⁾

위의 내용은 당시 간역에 대한 지침인데, 상당히 간략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봉정사의 승려가 인출 시 총괄하여 看儉한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경전의 인출사업이 봉정사의 승려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이다.⁴⁶⁾ 당시 봉정사에는 다양한 인력들이 참여했을 것인데 특히나 책판을 만들고 글씨를 새기는 일에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 봉정사 승려가 감독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출을 봄, 가을 두 계절에만 시행했다는 것이다. 이 지침에

39) 위 현판 중 “一 本寺僧統印出時 看儉朽破事”

40) 위 현판 중 “一 印出僧行告于僧統小 無弊端事”

41) 위 현판 중 “一 印出時至誠多少間佛供及神衆聖供”

42) 위 현판 중 “一 春秋兩節印出事”

43) 위 현판 중 “一 幾卷幾丈見題目知悉事”

44) 위 현판 중 “一 翻板安詳而勿擲破傷事”

45) 위 현판 중 “一 細掃及所入等物情備事伏願碩德惕念舉行者”

46)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기획, 남권희 등 저, 2014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향아리, 230면, 240면에 의하면 각수가 책 간행을 위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 간역소에서 숙식하며 목판을 세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간역을 위해 다른 사찰의 승려가 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은 당시 만연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는 인출에 관한 사항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판목을 만드는 것도 해당되는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봄, 가을의 두 계절은 일하기도 가장 적합한 계절이고 적절한 환경 속에서 보존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목판은 이 시기가 온·습도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시기이기도 하기에 두 측면 모두를 염두에 둔 지침으로 판단된다. 넷째, 인출할 때 일을 하는 사람은 제목만 보고 몇 권, 몇 장인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적어도 간행하는 경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간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한 간행 경전의 전반적인 체제는 철저하게 숙지하고 교육 후 당시 업무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넷째, 이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일 수 있으나 목판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 목판을 새기기 위해서 들였던 인력과 목판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하는데, 목판이 깨지는 경우도 상당수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현판의 글을 통해서 봉정사의 당시 불교 경전 인출 사업이 상당히 중요했고 대규모 사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찰에서는 이 당시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또 이 경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지는 불교 경전이 간행된 다음 해인 1770년(영조 46)에 제작된 현판인 「安東府西嶺天燈山鳳停寺古法堂大藏板殿燈燭獻畧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현판의 기록에서는 笈談, 旨閒이라는 사찰의 두 승려가 중심이 되어 先師와 부모를 위해 대장전에 대규모의 시주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주의 정도는 葉字 70첩 중 11복 5속 5두락, 辰字 17전 중 18복 9두락, 宜字 8전 중 11복 6속 6두락이었다.⁴⁷⁾ 당시 인출 사업을 위해서 사찰에서도 상당한 재정적 소모가 있었을 것인데, 이 경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두 승려가 상당한 비용을 시주하였으며 이 비용을 통해서 불교 경판과 경전들은 당시 봉정사의 대장전에 보관·관리되었을 것이다.

47) 「安東府西嶺天燈山鳳停寺古法堂大藏板殿燈燭獻畧記」 중 “願納 本面外西後花原員葉字七十
畧十一負五束五斗落只 春陽道心面林堂員辰字十七田十八負九斗落只 本面外西後花原員宜字
八田十一負六束六斗落只”

요컨대, 봉정사에서 1769년에 간행한 불교 경전은 당시 대장전이 있었음에도 불교 경전이 많지 않아서 대량으로 간행한 인출 사업이었으며, 그 사업에는 명에서 전래되었지만 복각되지 못했던 『가흥대장경』의 간행 의도, 인출본이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못해서 간행이 필요했던 경우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필요했던 불교 경전들을 모아서 한 번에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간행은 7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당시 상당히 공력을 들였는데, 이는 경전 간행 배경과 간행 업무 지침을 기록하고 있는 현판과 두 승려의 대장전 시주에 대한 현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 봉정사 간행 불경의 간행 참여 인원

1769년에 봉정사에서 대규모의 불교 경전의 간행이 진행됨에 따라 당시 다양한 인물들이 경전 간행 사업에 참여했음이 확인된다. 현존본의 施主秩⁴⁸⁾ 및 緣化秩⁴⁹⁾을 참고하면 대시주 한 명의 이름만 등장하는 『팔양경』을 제외하고는 간역에 참여한 다양한 업무 명칭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역 업무는 크게 施主, 證明 또는 證師,⁵⁰⁾ 刻手, 校正, 書寫, 持殿,⁵¹⁾ 詩呪, 供養, 鐘頭⁵²⁾ 良工, 木手, 治匠, 化主, 都監,⁵³⁾ 別座,⁵⁴⁾ 淨桶, 熟頭⁵⁵⁾ 등으로 넓게

48) 사찰에서 경전을 간행하기 위하여 절에 비용을 바친 시주자들의 명단을 말한다. 이하 각 주의 불경 간역 관련 용어 해설은 裴賢淑, 2009 「蔚州 雲興寺의 佛經刊行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44, 68면 참조.

49) 사찰에서 특별히 불사를 수행하는 임시의 緣化所에서 실질적인 업무와 관계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다. 연화절을 통해서 당시 간역사업을 위하여 승려들이 어떤 업무를 지니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50) 불교의 법회나 불사가 잘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승려로 불사 전반을 관장 한다.

51) 개판불사가 잘 진행되도록 부처님께 기도하는 승려이다.

52) 사찰에서 종을 치는 일을 맡은 승려이다.

53) 化主, 都監, 幹善, 化士라는 용어가 두루 쓰이며, 불경, 불화, 불상 조성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불사를 총괄하여 관장하는 승려로 보통 그 사찰의 주지승인 경우가 많다.

54) 불사가 있을 때 불전에 예물을 차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55) 사찰에서 반찬을 장만하는 사람이다.

나타나는데 간행 경전에 따라 임무의 기록이 상세 및 축약되어 있다.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을 모두 정리하여 나열하는 것은 봉정사 간역 사업의 특징을 보여주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그 중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앞의 현판의 기록에 보이듯 이 인출 사업을 주도하여 진행한 인물은 雪月觀性과 月岩 旨閒이 있다.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현판의 기록뿐만 아니라, 『범망경』의 「重刻梵網經序」의 南岳 英旽라는 승려가 서문에 두 인물을 ‘설월이 어찌 指珠와 같은 손을 가지고 있지 않겠으며, 월암이 어찌 옛날 幹蠱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실로 하늘이 동방의 진주의 이로움을 획득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雪月이 있고 또 月岩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평하고 있으며, 臥雲 信慧라는 승려는 『사분계본여석』의 서문에서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대장경인 『사분계본여석』의 간행을 위해서 ‘이름이 觀性이고 호가 雪月인 도인이 月巖子 旨閒에게 일을 맡겼다. 지한은 스스로 삼백금을 보시하고 동심으로 협력하여 재목을 모으고 후세 역만세에 유포하고자 하였다.⁵⁶⁾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두 인물은 유사한 시기인 1765년(영조 41)에 봉정사에서 제작된 〈甘露圖〉에서 각각 證師 및 化主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봉정사의 핵심적인 두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인물 중 雪月 觀性은 『청문』, 『범망경』, 『사분계본여석』, 『기신론소필삭기』에서 증사로, 『자비도량참법』, 『보살계의소』에서는 증명으로 모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분계본여석』과 『범망경』의 발문을 작성한 인물을 알 수 있다.⁵⁷⁾ 한편 月岩 旨閒은 雪月 觀性 보다 당시 봉정사의 더욱 핵심적인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旨閒이 경전 간행뿐만 아니라 봉정사에 봉안된 1766년의 〈雪峯堂大禪師思旭眞影〉, 〈影月堂大禪師應眞影〉, 〈抱月堂大禪師楚景眞影〉, 〈喚惺堂大禪師志安眞影〉, 1768년의 〈松雲堂大禪師眞影〉 등 조사들의 진영에 모두 단독으로 化主로 나

56) 『四分戒本如釋』 「重刻四分律序」 중 “有道人於此 觀性其名 雪月其號也 委事於月巖子旨閒間也自施金三百 而與之同心効力 鳩財壽木 爲流後世億萬”(이종수, 앞의 논문, 347면에서 재인용).

57) 『四分戒本如釋』과 『梵網經』의跋文이 “乾隆己丑流月三藏金文鏤板祝願辭 奉三寶弟子觀性焚香奏啓...”로 시작된다.

오며, 모든 현존 경전에서 화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승려는 이미 1756년(영조 32)에 작성한 觀音菩薩坐像 腹藏 유물 중 「願文」에서 화주로 등장하고 앞에서 언급한 1780년(영조 46)의 혼판인 「안동부서령천등산봉정사고법당대장판전등축현답기」에서 대장전에 대시주한 두 승려 중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마도 봉정사의 가장 핵심 인물로 모든 업무를 도맡아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⁵⁸⁾

다음으로 畏談이라는 인물이 있다. 이 인물은 眞閒과 마찬가지로 앞의 혼판에서 대장전에 크게 시주를 한 인물로 『보살계의소』를 제외한 모든 경전에 대시주로 나오며 『팔양경』에서는 단독으로 대시주로 등장한다. 또한 『사분계본여석』에서 서문을 쓴 와운당 신혜는 『범망경』, 『사분계본여석』, 『기신론소필삭기』에서는 증사로 『자비도량참법』에서는 증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승려는 봉정사 승려가 아니라 인접 사찰인 예천 龍門寺의 승려임을 알 수 있다. 이 승려는 현재 예천 용문사에 <臥雲堂禪師眞諱信慧>가 봉안되어 있으며, 용문사의 승려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忌日錄』에 喚醒 志安(1664~1729), 昭影 神鏡(1684년 용문사 활동)에 이어 이름이 올라있는 것을 보아 봉정사 경전 간행 시기와 유사한 시점에 예천 용문사에서 중요한 인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⁹⁾ 이는 인접 사찰에서 봉정사 경전 간행에 임무를 지니고 참여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⁶⁰⁾

58) 이종수, 앞의 논문, 348면에 眞閒이 『기신논소필삭기』의 간행을 주도하면서 서문을 涵月 海源에게 부탁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는데, 함월 해원이 『기신논소필삭기』의 서문을 쓴 시기가 1695년이며, 지한이 『기신논소필삭기』를 간행한 시기가 1769년이므로, 시기상 眞閒은 함월 해원에게 서문을 부탁한 것이라기보다는 함월 해원이 서문을 쓴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다시 경전을 간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59) 『忌日錄』은 원문이 공개가 되지 않아 전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다만 용문사 성보 박물관 홈페이지(<http://www.yongmunsa.kr/museum/> 2015.1.30.접속)에는 와운당 신혜를 설명하며 『기일록』에 이름이 올라와있다는 설명이 있어서 이를 알 수 있다.

60) 안동 봉정사와 예천의 용문사는 인접한 사찰로 1769년에 용문사의 인물이 봉정사 경전 간행에 참여하였고, 또 봉정사에 1710년의 <安東鳳停寺靈山會掛佛圖>를 그린 화승 가운데 道文, 雪峯, 戒淳, 海英은 1709년에 용문사의 <醴泉龍門寺千佛幘>과 <醴泉龍門寺八相幘>에서 화승으로 활동하는 양상이 보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승려들은 사찰을 옮겨 다니며 활동한 인물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 사찰의 관계를 단정 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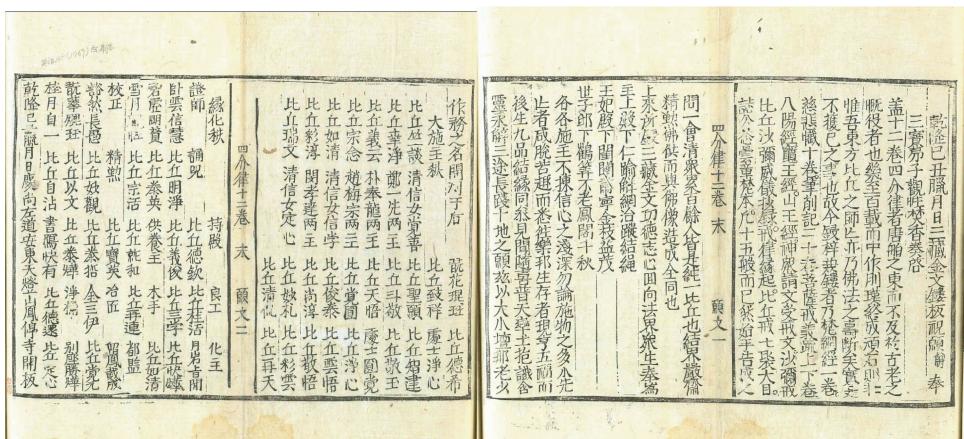
또한 봉정사의 현존본에는 각수가 『자비도량참법』에만 등장하는데, 다른 경전에 이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모든 각수를 한 경전에 한 번에 쓴 것이 아닐까 한다. 각수들의 이름은 惠鑑, 克俊, 彩淳, 雪云, 瑞文, 有活, 幻神, 再燁, 僅學, 幻燈, 自元, 凤活, 普日, 瑞信, 位尙, 碧圓, 漢洙, 智淳, 肯淑, 達心, 始還, 休和이다. 특히 관심을 가질만한 각수는 직접 언급하고 있는 畫像願刻 德欽으로 변상도 전문 각수로 이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시주질에는 良工의 임무를 지니는 인물들이 있는데, 양공은 화승 또는 가사를 제작하는 승려를 일컫는 것이다. 간행본 중에 변상도가 있는 『범망경』, 『자비도량참법』에 양공으로 이름이 있지만 변상도가 없는 『기신론소필사기』에서도 ‘良工 桂活 等 七十人’으로 밝히고 있어서 화승이라고 보기기는 힘들 것 같다. 다만, 『범망경』의 시주질 및 연화질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권수의 변상도 끝부분에 ‘敬?有誠’이라는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인물은 화공임을 알 수 있다. 이 인물은 봉정사에 봉안된 1766년의 〈설봉당대선사사옥진영〉, 〈영월당대선사옹진영〉, 〈포월당대선사초민진영〉, 〈환성당 대선사지안진영〉, 1768년 〈송운당대선사진영〉의 조사들의 진영에 모두 화공이라는 명칭 대신 良工 有誠으로 단독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인물은 진영을 그런 화승으로 알 수 있으며 이 승려가 『범망경』의 변상도를 그리는데도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상당히 다양한 인물들이 봉정사 경전 간행에 참여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큰 특기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3) 봉정사 간행 불경의 서지적 특징

현존하는 봉정사 간행본은 그 간행본만이 지니는 두드러지는 서지적 특징은 도출하기가 쉽지 않으나 살펴볼만한 몇 가지 특징적인 면들이 있다.

첫째, 우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봉정사 간행본에서는 권말에 대부분 공통적인 형식의 발문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 사찰 간행본에 상당한 분량의 발문이 드러나는 경우는 보편적인 특징은 아니며, 일정한 형식의 발문과

당시 간행 대상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봉정사 간행본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권말 부분은 크게 공통적으로 ①처음에 축원 또는 시주를 연다는식의 도입구를 간략하게 작성하고 이 경전이 왜 간행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②15종의 간행본에 대해서 간행본마다 경전명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 목록을 제시하고 경전 간행에 어떻게 노력을 기울였는지 기록하고, ③왕, 왕비, 세자에 대해서 축원을 하고, ④시주질, 연화질를 제시한 후에 ⑤간기를 기록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팔양경』을 제외하고는 발문 분량의 차이는 조금씩 있으나 봉정사 간행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림 2〉 봉정사 간행본 『사분계본여석』 권말

둘째, 봉정사 간행본 중에 『가흥대장경』의 번각본인 『보살계의소』, 『사분계본여석』, 『기신론소필사기』 3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가흥대장경』은 중국 명나라의 최초 방책본 대장경으로 1681년 또는 그 즈음의 시기에 조선에 전래되어 복각된 대장경이다.⁶¹⁾ 이 중국 대장경을 봉정사에서 번각한 것은 직접 판본을 살펴보고 분석해보면 그 형태 서지적 특징을 알

61) 이종수, 앞의 논문, 329면. 봉정사에서의 『가흥대장경』 복각의 배경은 본 논문 347-349면에서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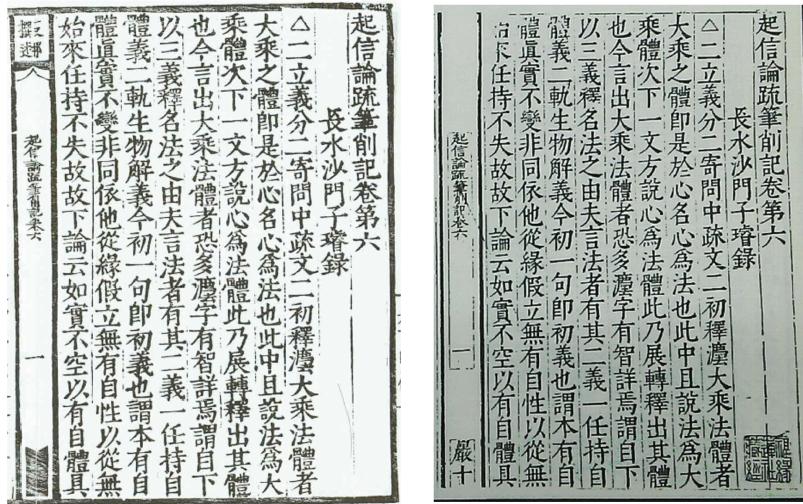
수 있다. 이 판본들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판심부가 넓으며 정방향의 인서체로 판각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가홍대장경』은 판심부에 어미가 없으며 상단부에 ‘經’, ‘律’, ‘論’, ‘疏’가 花口로 나타나며, 판심 하단부에 대장경의 函次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어미가 있거나 아예 아무 것도 없거나, 하단에 함차 대신 각수와 판의 글자 수가 나타나는 등 다양한 형태가 혼재하고 있다.

봉정사에서 번각한 『가홍대장경』 3종의 원 형태적 사항은 모두 공통적으로 인서체로 새겨진 목판본으로 10행 20자, 有界, 上下單邊左右雙邊의 형태인데 판심은 각각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보살계의소』는 판심 상단부에 ‘疏’가 화구로 나타나며, 하단은 函次인 ‘何’가, 『기신론소필삭기』는 판심 상단은 무어미에 화구도 없으며 하단은 함차인 권1에서 권6까지는 ‘巖’이, 권7에서 권20까지는 ‘岫’가 나타난다. 『사분계본여석』은 판심 상단은 무어미에 화구도 없으며, 하단은 각수명과 판의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다.⁶²⁾

이 『가홍대장경』의 봉정사 번각본은 그 형태가 다름이 확인된다. 봉정사에서 번각되면서 서문과跋문은 완전히 새롭게 새겨서 구성하였기 때문에 원 형태와 다르지만, 본문은 서체와 10행 20자의 항자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일부가 변형된 경우가 보인다. 번각 시 본문의 형태적 변화 양상은 『보살계의소』는 四周雙邊으로 변형되었으며, 『기신론소필삭기』는 판심 상단에 분류명 대신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는 뜻의 ‘支那’라는 기록이 화구로 나타나며 上下內向黑魚尾의 형태로 어미가 나타난다. 『사분계본여석』은四周雙邊으로 변형되었고 역시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의 ‘支那撰述’이라는 기록이 화구로 나타난다.⁶³⁾

62) 『가홍대장경』의 형태사항은 ‘新文豐出版公司 編, 1987 『(明版)嘉興大藏經』, 台北：新文豐出版公司’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63) 이와 같은 형태 서지학적인 특징은 분명 『가홍대장경』이 번각되면서 원 형태가 변화된 모습이지만, 봉정사에서 의도를 가지고 변형하여 인출하였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그 이유는 花口에 등장하는 당시 중국을 지칭하는 ‘支那’는 조선보다는 일본에서 사용되던 용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의 서문인 『四分戒本如釋』 「重刻四分律序」 중 “近世有無主海舶 自支那而來 泊於菴子島 乃滿船大藏 不知幾許卷 而四分在其中矣”에서 ‘支那’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점을 통해서 ‘支那’라는 문구를 봉정사에서 새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가흥대장경』(우) 및 봉정사 간행본(좌)『기신론소필삭기』

셋째, 봉정사 간행본 중 『범망경』은 여러 경전이 하나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경전의 독특한 구성 및 체제도 봉정사 간행 불경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이 경전은 하나의 경전이 아닌 여러 가지 세부 경전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구성의 목 차와 소모되는 종이를 ‘粧冊 次第’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범망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들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그 순서는 ‘新序一紙’, ‘舊序-四紙’, ‘儀式-十七丈’, ‘梵網經-五十八紙’, ‘四分目抄-九紙’, ‘緣起-三紙’, ‘沙彌戒-四紙’, ‘威儀抄-六紙’이다. 그리고 가운데에 ‘合一卷粧’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경전은 모두 봉정사 간행본의 발문에 나오는 15종에 포함된 경전이다.⁶⁴⁾ 이 경전에 포함된 경전들은 판본이 통일성을 보이지 않는다.

항자수도 경전에 따라서 10항 19자와 10항 20자의 혼재된 상황이 나타난다. 구성 경전 중에서 『범망경』은 10항 19자로 다른 경전과 글자체도 다른 것이 확인되

64) 이 형태로 구성된 경전은 현재 용화사 소장의 『梵網經』이다. 동국대학교에도 봉정사 판본이 있으나, 이는 현존하는 목판으로 20세기에 찍은 후쇄본이기에 다른 경전과 합침되어 있지 않고 『범망경』 하나의 경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는데, 이를 통해서 당시 봉정사에서는 『범망경』을 하나의 경전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는데 여러 구성 경전을 동일한 형식으로 통일하여 새롭게 제작하기보다는 다른 판본 계통으로 합침된 『범망경』을 그대로 간행을 했거나, 저본을 달리하던 계통들의 판본을 모아서 이 경전을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10항 20자 경전인 「受菩薩戒儀」, 「四分律七聚大目抄」, 「沙彌戒儀」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넓은 판심부, 10항 20자인 항자수, 글자체 등을 통해서 『가흥대장경』의 번각본과 형식이 상당히 유사하나 직접적인 번각본이기보다 번각이 반복되면서 후대에 형태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봉정사 간행본 『자비도량참법』은 세조대에 간행된 간경도감본의 계통본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권말跋문에서 '세조대왕전하가 새겨서 서울의 절[京寺]에 보관을 해서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여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안쓰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간경도감본이 서울 사찰에만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서 지방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⁵⁾

4. 결론

지금까지 안동 천등산에 위치한 봉정사의 인쇄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봉정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로 고건축사와 미술사 학계에서 연구가 그간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봉정사는 서지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사찰로 안동 지방의 인쇄문화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봉정사의 인쇄 문화를 서지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면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일찍이 봉정사는 대장전을 갖추고 있었던 사찰로 인접 지역에 사찰들뿐만

65) 1769년 봉정사 간행본 『慈悲道場懺法』跋文 “右慈悲道場懺法者 … 然世祖大王殿下 鎏藏
京寺 印出不自在也 欲覽者 多以眼恨”

아니라 유학자들과 관계된 건물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다양한 문화를 갖출 수 있는 위치적 이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봉정사에 다양한 인물이 지속적으로 방문했던 사실과 다양한 분야의 서적 간역 작업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봉정사에서는 각종 사료들을 통해서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문집, 창의록 등 다양한 서적들의 간역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는 사찰에 간역소를 직접 갖추고 서적을 간행한 사례도 보이며 완성된 서적의 목판도 보관한 사례도 있다. 이들의 기록은 대부분 18세기 이후부터 보이는데, 당시 봉정사에서는 사찰의 기능과 일종의 출판소 기능을 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봉정사에서는 1769년 한 시기에 15종의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데, 경전의 간행 배경과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 경전들은 당시 봉정사에 봉안된 경전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시에 간행되었는데, 현존본의 서문 및跋문을 통해서 각기 다른 이유로 당시 간행이 필요했던 경전들을 한 번에 모아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전 중에는 명나라의 『가홍대장경』의 번각본도 3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봉정사 승려는 물론, 인접 사찰의 승려들도 참여하여 이루어진 큰 간역 사업으로 보인다. 현재 이 경전 간행과 관련하여 간행 배경 및 규모, 소모된 시간 및 노력, 시주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현판이 남아 있어서 이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셋째, 봉정사의 현존하는 불교 경전, 현판, 불화 등을 통해서 1769년 불교 경전 간역 사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과 그 시기에 봉정사에서 활동하던 주요한 인물들을 밝힐 수 있었다. 이 인물들에는 대화주를 비롯해서 중인, 각수, 화공 등이 있었는데, 인물들의 이름과 이들에 대한 평을 밝히고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이들은 불교 경전 간행뿐만 아니라 불화 제작, 사찰 운영을 위한 시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봉정사에서 간행한 현존하는 불교 경전은 크게 네 가지의 서지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봉정사 간행본에 여느 사찰본과는 달리 동등한 형식으로跋문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간역 사업에 대한 그 정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가홍대장경』이 번각 당시 판식의 변형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두 판본이 혼재되어 구성된 『범망경』과 서울의 사찰에 경전이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 간행의

필요성으로 간행된 간경도감 계열의 『자비도량참법』 또한 현존 불교 경전의 특징적인 면이다.

이 같이 봉정사는 유교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안동에 위치하여 유교와 불교의 문화가 혼재하고 있는 융성하게 문화가 형성된 사찰이다. 봉정사의 수준 높은 인쇄 문화는 현존본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역사적 사실들이 명확히 보여 준다. 봉정사는 불교 문화사 및 인쇄 문화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투고일(2015. 4. 19), 심사일(2015. 5. 20), 개재확정일(2015. 6. 3)

참고문헌

1. 원전자료

- 『退溪先生文集』, 『退溪先生文集外集』, 『退溪先生年譜』, 『藥圃先生續集』, 『松巖先生文集』, 『谷雲集』, 『水村集』, 『靜齋先生文集附錄』, 『梅窓先生文集』, 『修巖先生年譜』, 『愚川先生文集』, 『大山集』, 『俛庵文集』, 『梅村文集』, 『西山先生文集』, 『慕亭先生文集』, 『雲谷先生文集』, 『下庵文集』(한국고전종합DB, 유교넷, 2015.1.30.접속)
- 『刊所日記』(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교넷, 2015.1.30.접속)
- 통문0057(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교넷, 2015.1.30.접속)
- 『梵字考』(국립중앙도서관 소장, BC古朝21-190)
- 『佛說天地八陽神呪經』(국립중앙도서관 소장, BC古朝21-395)
- 『清陰先生集』(동국대학교 소장, 고서 810.819 김51亥 v.1-14)
-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동국대학교 소장, 고서 217.62 상16재 v.1-2)
- 『四分戒本如釋』(동국대학교 소장, 고서 213.21 흥811亥 v.1-4)
- 『神衆作法請文』(동국대학교 소장, 고서 217 청37)
- 『起信論疏筆削記』(동국대학교 소장, 고서 213.37 마34ㄱ자 v.1-4)
-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용화사 소장, 經-15)

- 『菩薩戒儀疏』(용화사 소장, 論-8)
- 『安東府邑誌』(규장각 소장, 奎 10832)
- 『新增安東府輿地誌』(규장각 소장, 古 4790-34)
- 『友禱楔案』(경북 유형문화재 제327호, 국가기록유산, 2015.1.30.접속)
- 『諸上日月』(보물 제1008호, 국가기록유산, 2015.1.30.접속)
- 『紺紙金泥妙法蓮華經』 권7(보물 제1183호, 국가기록유산, 2015.1.30.접속)
- 「天燈山鳳停寺記」, 편집부 편, 1973 『美術史學研究』 117, 韓國美術史學會.
- 『慶尙左道安東西嶺天燈山鳳停寺大藏經鑄板部數及印出体例規模記』,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사찰문화재-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Ⅱ 자료집-』,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 『安東府西嶺天燈山鳳停寺古法堂大藏板殿燈燭獻畧記』,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사찰문화재-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Ⅱ 자료집-』,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 〈安東鳳停寺甘露圖〉, 〈安東鳳停寺靈山會掛佛圖〉, 〈雪峯堂大禪師思旭眞影〉, 〈影月堂大禪師應眞影〉, 〈抱月堂大禪師楚旻眞影〉, 〈喚惺堂大禪師志安眞影〉, 〈松雲堂大禪師眞影〉, 봉정사 복장 유물 「願文」,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사찰문화재-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Ⅱ 자료집-』,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 〈醴泉龍門寺千佛幀〉, 〈醴泉龍門寺八相幀〉, 〈臥雲堂禪師眞諱信慧〉,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사찰문화재-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Ⅱ 자료집-』, 대전,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2. 논저

- 裴賢淑, 2009 「蔚州 雲興寺의 佛經刊行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44.
- 이경미, 2007 「고려·조선의 法寶信仰과 經藏建築의 变遷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수, 2013 「조선후기 가흥대장경의 復刻」, 『서지학연구』 56.
- 林南壽, 2008 「鳳停寺에 관한 諸問題」, 『미술사연구』 22호.
- 임노직, 2005 「安東의 木板印刷와 徽州의 木板」, 『안동학연구』 4.

3. 단행본

- 문화재청, 2007 『鳳停寺 極樂殿 : 修理·實測報告書』, 문화재청.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부 기획, 남권희 등 저, 2014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문화재청, 2007 『한국의 사찰문화재-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Ⅱ 자료집-』,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新文豐出版公司 編, 1987 『(明版)嘉興大藏經』,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4. 전자자료

용문사 성보 박물관 <http://www.yongmunsa.kr/museum/>

유교넷 <http://www.ugyo.net>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Abstract

The study on printing culture of Bongjeong-sa Temple in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Lee, Sangbaek

This study examines the printing culture of Bongjeong-sa Temple(鳳停寺) on Mt. Cheondeong(天燈山), in Andong. Throughout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numerous Buddhist scriptures were published extensively; notably, various books and documents were consistently published at Bongjeong-sa Temple.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during this prolific period of time, along with various documents related to the printing culture of the temple, remain in the present and it is through these documents that this study focuses on the cultural value of printing at Bongjeong-sa Temple.

This study focuses on two main ideas: 1) the general temple and printing history of Bongjeong-sa Temple and 2) the culture and history behind the printing of Buddhist scriptures. For the former, the formation of this printing heritage is examined through study of the temple's location and surroundings, in addition to historical documents related to the temple's printing culture. For the latter, as Bongjeong-sa Temple published fifteen versions of Buddhist scriptures in 1769 alone, this study will analyze the purposes for publication and common characteristics of published Buddhist scriptures, along with the various people connected to the publishing of Buddhist scriptures and other works of that period in time.

Study results reveal that a significant amount of books and documents were published at Bongjeong-sa Temple in Andong, particularly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Published works varied in content, from the anthologies of Confucian scholars to Buddhist and historical texts. The publishing of fifteen versions of Buddhist scriptures, in particular,

involved considerably large-scale undertakings; publishing houses were installed and various people participated in the high-quality publications of Bongjeong-sa Temple in 1769.

Key words : Andong, Bongjeong-sa Temple, Temple, Publication in temple, Printing culture, Sutra Hall, Jiaxing Tripitaka